

발행인 칼럼

기독교의 영성, 어린아이에서 찾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왔다. 상큼한 바람결에 어린 나무들이 아직은 열은 푸른 옷을 입고 훌쩍 발돋움 하는 5월의 첫 절기가 5일인 어린이 날이다. 팬데믹의 어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우리가 옛날 불렀던 이런 노래가 또 다시 불러 지리라. “날아라 새들이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를 세상~” 아무 걱정 없이

뛰놀던 그 어린 시절이 그림다.

“쫄그만 게 까불어.” 적지 않은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셨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도 하셨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셨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드러낼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신성한 존재들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자기를 낮추는 사람”(마18:4)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셨다(빌2:8) 그러니 “자기를 낮추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정수(精髓)가 아닐 수 없다. 존 파이퍼 목사는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할 만한 사람인지 그 영적 적합성을 체크할 때 살펴봐야 할 것들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곧 어린아이와 함께 있게 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엿볼 수 있으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특권의식이 없다. 놀거나 무엇을 할 때 열심히 땀을 흘릴 뿐 어른들처럼 이해타산(利害打算)에 젖어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사회의 아픔인 ‘갑’의 교만도 ‘을’의 비굴도 없다. 어린아이들은 얼굴이 곧잘 붉어지고 자기를 곧잘 감춘다. 그들에게서 어떤 영성을 찾을 수 있나. “자기부인”의 영성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다. 움켜쥐는 것보다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나누면서 은연중에 “관계” 중심의 삶을 산다. 남을 도우면서 희열을 느낀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자기를 낮추는 영성은 다른 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 “십자가를 짐”의 영성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의존적인 사람이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늘 아빠를 찾고 엄마를 부른다. 자기를 낮추는 영성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기도”의 영성이다.

자기부인, 십자가를 짐, 그리고 기도의 영성이 어린아이들에게서 찾아진다는 것이 경이롭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독교의 영성이겠는가. 계관시인(桂冠詩人) 윌리엄 워즈워드는 그의 시 “My Heart Leaps Up”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시인은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뚝시 뛰었나보다.

화목한 가정은 사명을 함께 나눈다

TGC, 헤리엇 코너가 말하는 성경적 가정의 실제, “사명을 같이 한다” 소개

우리 대부분은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런 가족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 걸까? 우리는 따뜻한 불빛이 비추는 방에 웅기종기 앉은 가족의 모습을 상상할지 모르겠다. 오늘날 현대적이고 도시화된 사회에서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 휴양지 같은 의미다. 낮에는 각자 흩어져서 일하거나 공부하다가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즉 “가족시간”(family time)은 대부분에게 쉬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런 가정의 모습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 전까지만 해도 가족은 하나의 생산 단위였다. 집은 일하는 장소였다.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함께 있으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라 가족은 노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가족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창조주가 지으신 피조물을 잘 관리함으로 다른 이들을 창조주에게 이끌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전하고, 주

님이 주신 대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일할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과 그의 신부에게 대 증거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때, 그 모습은 세상을 향해 아버지와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대 증거하는 것이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가족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기독교인 가정은 사명을 공유해야 한다.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은 가족의 유대관계를 강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Strong Families Share Mission). 이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TGC(The Gospel Coalition)가 소개한 헤리엇 코너의 “사명을 같이 한다”를 게재한다. 헤리엇 코너는 Sydney Missionary and Bible College에서 언어학과 신학을 전공했으며, 대표 저서로 'Big Picture Parents: Ancient Wisdom for Modern Life'가 있다.

가족의 모습이 바뀌었다

산업화 전까지 가족의 사명은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 가족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기반으로 밭이나 농장 그리고 가게를 운영했다. 가정은 자녀를 교육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곳이었다.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는 이런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어떻게 가족의 유대를 강화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가



그 명령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어졌다(창1:28).

에덴동산을 가꾸고 일하는 것은 아담 혼자 할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했고 아담의 동반자가 되게 했다. 그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땅을 채워 갔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자녀들과 공유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도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

가족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하는 것

족은 같은 공간 안에 동거하는 것을 의미했고, 또한 서로가 곁에 서서 공동된 사업을 하는 것(비록 반드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의미했다. 어머니에게 가정 안에 일터가 있다는 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도 매진하는 것을 의미했다... 생산적인 노력이 온통 가족에게만 집중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녀를 훈련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임무를 가졌다.”

이런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가정과 일터를 분리해버린

산업혁명과 함께 바뀌었다. 19세기가 지나면서 많은 아버지는 일터로 나갔고 집에는 어머니와 자녀만 남았다.

채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현대적인 가정 대부분이 필요한 것을 밖에서 조달했다. 공장, 회사, 슈퍼마켓, 학교, 그리고 양로원에 이르기까지 가족은 더 이상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공동된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지 않게 됐을 때 가족은 쉽게 분리됐다. 알라스타어 로버트(Alastair Roberts)

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은 압박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그 무엇이다... 가족 전체에게 주어진 짐의 무게가 거의 사라졌을 때, 가족은 그냥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가질 뿐이다. 그런 가정은 훨씬 더 쉽게 붕괴된다.”

가족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각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사명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피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다.

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8-19).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인류에게 준 명령과 언약의 이행을 다음 세대에 바로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다. 모든 가족구성원이 다 안식일에 쉬라고 했다.

(4면으로 계속)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료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 알코올성 간염, 간 초저장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CHURCH OF GOD

창립 39주년 기념부흥성회

이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

일시: 2021. 5/13(목) - 5/16(주일)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현장예배)
www.gracemi.com/온라인예배

5/13(목) 7:30pm
14(금) 5:30am, 7:30pm
이재환 선교사(컴미션대표)

5/15(토) 6:00am, 7:30pm
박기호 목사
(Fuller 신학교 교수)

5/16(주일) 1~4부
한기훈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4)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1) 나르시시즘(Narcissism)에 물들어가는 예배 앞에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보았듯이 모세의 시내산 예배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었음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오직 그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만이 존귀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 예배의 본질이 많이 희석되어가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대 교회들이 나르시시즘(Narcissism)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즘이란 “자기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위키백과사전에서는 정의한다. 즉, 코로나 시대에 영성을 통한 예배가 대세로 되면서 예배를 구성하는 사역자들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려는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진준 목사는 지난 2020 가을학기 월드미선대학교에서 “복음적인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특강을 통해 “현대교회는 나르시시즘 예배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많이 나타나 있던 사회적 현상이었다. 하

기술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 말이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기도자들에게 또 예배 음악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떨림의 고백으로 매 순간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하는 모든 기술들을 사용하여 인기영합주의와 심미주의적 요소를 드러내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에 물들게 되는 중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C S 루이스는 20세기 초 불버리즘(Bulverism)이라는 신종어를 만들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생각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도 없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불버리즘에 고착돼 본질 놓치는 잘못 범치말아야

지만 코로나 시대에 영성예배가 보편화 되어가면서 예배자의 대상이 단순히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전제가 예배지도자들에게는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니 그 현상은 더 가속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런 현상의 결과로 예배에서 무대 위에 있는 예배자들(설교자, 기도자, 음악가 등)이 인기영합주의(Populism), 심미주의(Aestheticism) 사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더 깊이 물들어가도록 부추기고 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뛰어난 연주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수사학적으로 훌륭한 기술을 갖추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말을 구사해서 좋은 영향력을 펼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예술음악을 펼쳐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귀를 즐겁게 하여 좋은 예술 음악인이라 칭찬을 받을까? 이러한 요소들에 깊은 관심과 부담을 갖고 그것을 목적 삼으려하니 내가 더 많이 중심이 되어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자가 기도를 준비하고, 또 음악인들이 찬양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에 물들어가는 현상인 것이다.

20세기 초 의학과 심리학이 영성을 하나로 결합한 위대한 사상가이자 영성가인 폴 투루니에는 이런 고백을 한다. “나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대중을 즐겁게 하는 저술기법을 익히려려고 할까 봐 염려된다. 나는 지금처럼 단순함을 유지하고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런 꾸밈없이

이 그가 틀렸다고 가정하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부지런히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통해 주의를 분산시켜 무작정 그가 틀렸다고 가정할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결로써 C S 루이스가 당시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개탄하며 쓴 말이다. 이 사상은 교회에 다양한 이론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밴드악기들(기타, 드럼, 키보드)이 예배음악 악기로는 절대 불가하다는 이론을 내세워 예배에서 악기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런 악기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회중찬양을 인도하는 중요한 악기로 자리매김하여 잘 정착되어 사용하고 있다. 당시 이 악기들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예배음악의 본질에 근거하기보다는 너무 세속적인 악기라고 규정하고 교회음악 악기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논리에 근거해 진리를 논하기보다 당시의 문화와 환경에 의해 편리함을 이론 삼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것을 필자는 불버리즘의 한 현상으로 본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영성예배들이 대세가 되면서 무대 위에 있는 예배자들(설교자, 기도자, 음악가 등)이 예전보다도 더 많이 주연배우(Actor, Actress)들이 되려는 나르시시즘의 유혹들이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때 필자는 예배의 모든 사역자들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겨 온전한 예배자의 길을 가야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15면으로 계속)

월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시17:8)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눈동자는 몸의 어떤 부분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어떠한 부분보다도 아주 민감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뼈의 중앙에 놓으시고 여러 겹으로 감싸시고 눈썹에 울타리를 치시고 눈꺼풀에 커

튼을 치시고 속눈썹으로 답을 치시고 위험을 제 빨리 감지하게 하셔서 눈을 자동으로 감게 하셔서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개 그늘아래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안전하게 숨겨주십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이다(시17:9-15)

성도들이 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큰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은 위험한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주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므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한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않고 오직 더 좋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시18:1)

시편 18편은 “감사의 시”로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머리말에서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그가 이 시를 지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호와와 중”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와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스라엘 왕이 된 것보다 “여호와와 중”

이라는 사실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한지요! 2)“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다”고 했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신앙고백입니다.

목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시18: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하나이다!”에서 “사랑”이란 뜻인 “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표현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 다른 부분에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만 나옵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된 말인데 본 구절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이 주어로 이 단어가 사

용됐습니다. 이 한 단어를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시18:1-2)

다윗은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배경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힘이 있다면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의 삶은 땅에 있는 것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한 사람에게 얻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토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시18:3-6)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늘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아뢰리니, 얻으리이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동사입니다. 나를 늘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이제는 늘 아뢰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

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원수를 한순간에 흠시키고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증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6)



제3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와 육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는 단순히 영적으로 사랑 받는 자일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사랑 받는 자이다. 육체적 친밀함이 없는 사랑이란 반쪽 사랑이고 영적 사랑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헨리 나우웬은 자기 표현도 잘못하고 정신활동을 할 수 없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육체로만 존재하는 장애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는 육체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육신 없이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없다. 나우웬은 장애인들을 통해 육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신부의 결혼을 급하는 천주교적 전통과 성을 부정시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우웬의 외로움은 더욱 컸으며 사랑받는 아들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야 온전히 사랑받는 아들이 된다.

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요이1:7)라고 말하였다. 호크마 주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에 대하여 부인하는 이단사상 중의 하나가 곧 가현설이다. 이 같은 사상을 취하는 자들은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인간과 다름없는 모습을 지니시고 음식을 드시며 피를 흘린 채 죽으신 것 등은 다만 그와 같이 보이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독교 안에서 육체를 악하게 보아서 성적인 것을 죄악시하고 돈을 버는 직업을 천하게 생각하였다. 성은 좋은 것이다. 만약 성적욕구가 없었다면 결혼은 없었을 것이며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

목사가 되는 것만 소명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임을 종교개혁자들은 외쳤다. 모든 직업이 소명이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했고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았으며 그 돈을 저축하여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이다. 물은 위험한 것이지만 물이 없으면 배가 갈 수가 없다. 물질은 잘못 쓰면 위험한 것

사상이 있다. 그래서 구원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상과는 무관하다는 이론론에 빠진다. 그러나 물질과 육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이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다(창1:31).

나약대학 신약교수인 김동수 교수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다.



헨리 나우웬은 아담을 통해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 아담은 그의 육체로 나우웬을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소속이 되도록 인도하였다..

나님께서 성적욕구를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결혼하게 하여 인류를 존속시키신 것이다. 불은 재산을 태우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위험한 것이지만 불은 인간이 발명한 귀한 것이었다. 음식을 익혀먹고 추위를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성적욕구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돈을 버는 직업도 귀한 것이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공부만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지만 잘 쓰면 인간의 행복을 위하고 물질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다. 불교의 사상도 육체의 세상을 부정한다. 이 세상은 환상이고 그림자임을 아는 것이 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유교의 사상도 육체를 천대한다. 사농공상 계급이 있어서 돈을 취급하지 않는 선비가 제일 귀하고 돈을 많이 다루는 상인이 제일 낮은 계급이 되었다.

이런 영향을 받아 기독교에도 물질과 육체를 악하게 보는

“바울은 사람의 육신을 율법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장소로 제시하고 있다 육신은 인간의 욕망이 발원하는 처소라는 점에서 죄가 거하는 거주지인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육신 자체를 악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육신을 죄의 본성이라고 번역하는 NIV 번역은 옳은 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육신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단순히 마음과 대비되는 육신을 의미를 너무 확대한

제로 펼쳐지는 지상 환경이다. 당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공중에 띄워 놓으시거나 황량한 들만에 아무렇게나 방치하여 두지 아니하시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살게 하신 것이다.”

복지와 구제는 정부가 하고 다른 종교도 하나까 교회는 오로지 영혼 구원하는 전도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생각과 비슷한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주의도를 악

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교회일수록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강조한다. 복지와 구제는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전도는 그리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전도된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만큼 교회는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물질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혼구원이라는 명분으로 헌금을 내는 고객확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종교의 비즈니스야말로 투자 없이 수익을 올리는 최고의 사업이 된다. 종교 사기꾼들이 교주 노릇을 하며 사치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 섬김이 없이 지식으로만 전도한 기성교회의 잘못된 토양이 기회를 제공했는지도 모른다. 영혼구원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영혼이 살고 있는 몸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그 영혼구원의 진정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공산혁명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교회는 지배층과 결탁하여 사치를 누리면서 가난하고 약자들은 죽어 천국이 있으니 이 땅의 가난과 억압을 그냥 인내하라고 하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막스와 레닌은 기독교가 혁명을 가로막는 아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의 서양 기독교는 그리고 지주 크리스천은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 하면서 말로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한다(약2:16).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하면서 영혼은 구원해주시는데 배고픈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복음은 영과 육을 구원하는 총체적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miju92@gmail.com

...교회 예배와 음악

(14면에서 계속)

첫째, 복음적인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복음적인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하는 회중들로 하여금 복음의 감동을 통한 동감이 되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도록 도와야 한다. 즉 예배에서 회중들은 연주자(Performer)가 되어 하나님을 존귀케 하도록 연주하는 것이고 무대 위에 인도자들은 그것을 돕는(Helper) 역

할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버림 사상 고착화 되어 예배와 음악의 본질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급변하는 현대 문화 속에 예배와 음악은 참 많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바뀌어가고 진실을 가장한 거짓의 유혹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때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진 이론들이 내 사역에 정착되지 않게 노력해야 하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참 외로운 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대한 바알신을 물리치고 난 후 이세

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자 신세가 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더 이상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그저 세미한 음성으로만 엘리야에게 답해주셨다(왕상19:13).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천명(왕상19:18)이 있다

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이 7천명과 같은 나르시시즘에 물들지 않은 순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훈탁한 이 시대에 바르게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iyoon@wmu.edu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 교회로서 1974년 창립한 이후 47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이신 김봉운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에 따라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본교단(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인준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aster of Divinit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미국에서 5년 이상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사역하신 분
- 2 중언어(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 한글과 영문 이력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과 가족 소개 포함)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소속 증명서(노회발행) 각 1부
- 목회자가 직접 보내는 연락처가 포함된 봉인된 추천서 3통
-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web link)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1550 Wood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 www.buckscountychurch.org

서류 제출처 및 마감일

- 제출 마감일: 2021년 4월 30일까지
- 모든 서류는info@mybcpc.org에서 e-mail로만 접수합니다.
- 추천서는 아래 교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후 안전하게 폐기되고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립니다.

인/터/뷰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신임회장 김명전 장로

전파 통한 복음사역...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겠다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25차 총회 및 대회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제 7대 회장으로 굿TV 대표이사 김명전 장로가 선출됐다. 이로서 세계한인방송협회(WAKB)

회장으로 사역 중인 김명전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WCBA와 WAKB 회장을 겸임하게 됐다. 총회기간 중 김명전 회장을 만나 보았다.

“WCBA는 26년 역사를 가진 단체입니다. 지난 1995년 주선영 목사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선배 방송인들이 방송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창립한 단체지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선배 동료 기독교방송인들이 복음사역을 감당기 위해 여기까지 온 수고와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는 신임회장으로 지난 26년을 바라보며 WCBA를 이끌어온 선배 방송인들의 헌신과 수고에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그리고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협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딱히 포부라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이어오던 협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WCBA가 앞으로의 사역이 잘 전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독교방송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은 다르지만 전파를 통한 복음사역이니까요. 즉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고요.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몫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자의 WCBA 최근 사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했다. 그중 첫 번째는 협회 창립이후 작년까지 발자취를 모은 기록집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발자취를 모은 25년사가 발간됐습니다. ‘복음으로 땅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는데, WCBA의 활동은 비록 낙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 임해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자입니다.”

그는 두 번째로 기독교방송사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협력 등을 통해 회원방송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

는 50여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리역할을 해왔으며 회원사간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단법인 세계한인방송협회와 협력해 사역범위 확대 WCBA 25년사 발간·다음세대 참여위해 협회도 오픈

하지만 언론환경상 지상파 방송사들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해외 방송사들은 더 열악한 편이구요. 그래서 한국과 해외의 방송사들간 프로그램을 교환 협력하는데 WCBA가

세계기독교언론협회(세계언론)의 협력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명전 회장은 못할 것이 없지 않느냐며 방송과 신문의 차이가 있지만 복음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

는 공통분모가 있기에 서로 협력해 나아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생각된다며 세계언론과의 협력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WCBA 대회기간 중에 열린 WAKB(세계한인방송협회) 회장에 연임이 되는 등 양대 기구의 회장으로 섬기게 됐다”며 “이 두 협회가 함께 사역해 나간다면 복음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CBA는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이며 WAKB는 세계한인방송협회입니다. WAKB는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인 방송사들이 함께하는 단체이며 일반방송사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단체”라며 “WCBA는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WAKB는 복음사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하고자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WAKB의 지난 임기동안 한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한 이유는

인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더더욱 관계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번 총회에도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기에 국무총리가 영장으로 축사를 보내 줄 수 있었으니까요.”

WCBA 신임회장 취임사에서 다음세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에 김명전 회장은 다음 세대는 반드시 품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를 위해 LA를 방문해 회원사들과 교회들을 방문했었는데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위기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고요. 본 협회가 교회들과 협력해 다음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세대들에게도 문을 열어 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년 회장임기 동안 WCBA와 WAKB에 대한 바램에 대해서는 “주어진 환경이 녹록치 않아 어떤 거창한 것들을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일단 법인설립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회원사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년 임기동안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호르몬 대체요법

사무직에 종사하는 50대 후반의 중년 여성이 외래 진료소에 찾아왔다. 이 여성은 지난 10년간 여성호르몬 에스트로

겐을 꾸준히 복용해왔고 덕분에 폐경 후에 오는 신체적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병원을 찾은 이유는 어머니가 유방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신문에서 호르몬요법이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앞으로는 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지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여성호르몬제는 지난 30년 동안 폐경기 여성에게 젊어지는 약으로 인식되며 널리 사용되었다. 여성은 폐경을 전후해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난소의 위축으로 인해서 여성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폐경기 여성들은 안면 홍조(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 전신 무력감, 식욕 감퇴,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여성의

심장병이나 중풍 등의 발생 빈도가 폐경 후 크게 늘고 골다공증도 급증하는 것을 볼 때 여성에게는 폐경 자체가 건강상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폐경기 여성들은 여성호르몬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중

꼭 필요한 경우만 복용

합해 보면 여성호르몬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안면 홍조, 불면증 등 폐경 후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만 심장 질환이나 중풍, 폐

전색(폐혈관의 혈액이 굳어지는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의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은 호르몬 치료를 권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호르몬제 치료를 받아온 경우는 칼슘이나 다른 대체 약물로 바꾸도록 권유하고 있다.

다만 심한 안면 홍조나 불면 등 폐경 후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여성호르몬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복용하거나 하루절러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저용량의 호르몬 대체요법은 폐경 후 증상을 완화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면서도 심혈관 질환이나 암유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한꺼번에 호르몬을 끊는 것보다 용량을 낮추어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 폐경 직후 심한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 사람은 6개월 정도 단기간 호르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호르몬 치료를 중단해도 별다른 불편이 없는 사람은 호르몬 치료를 끊고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별도로 받으면 된다.

▲문의:213-383-9388

다니엘 21일 새벽기도회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이고,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입니다."

4/26(월) - 5/16(주일) 21일간 기도회를 은혜롭게 완주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세요. 호프센터 2층 HWY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6시에 진행됩니다. 5시부터 오셔서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합니다.